

SAMC | LAW REVISION

1. 성실업체 반입물품, 수입통관 더 빨라진다

관세청은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현재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하게 되며, 대상 물품도 통관 이후에 사후심사가 가능하여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무환물품·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

[Read More](#)

2. 수입 폐기물,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 등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방사능 성적검사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Read More](#)

3. 납부 유예제도로 편해진 부가세 납부, 어떻게 이용할까?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를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액의 비중이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정해진 다섯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정부는 국무조정실 2차장(노형욱)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 9.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 항을 거쳐 10.11일 교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Read More](#)

2. 말레이시아 수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16년도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동남아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Read More](#)

3. 우즈베키스탄, 60여 품목 관세 인하하거나 면제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지정 품목의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고 있다고 9월 22일 소개했다. 이번에 관세를 조정한 품목은 수지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 류 50여 개 품목이다. KOTRA는 우즈베키스탄이 이번 조치로 원활한 원·부자재 조달, 기업 운영 환경 개선을 통한 자국 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한·미 FTA, 개정 수순 밟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4일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5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되어 양측은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Read More](#)

2. FTA 원산지 간편인정 확대, 김치 등 전통식품 수출길 연다

관세청은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특히 전통식품이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ad More](#)

3.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9월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과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양측은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는 양국 교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중장기 협력관계를 격상하기 위해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인도 CEPA 개선 시 우리나라의 GDP는 약 0.05에서 0.10%까지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 후생은 6억에서 12억 달러까지 개선될 것으로 조사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